

조선시대 독서론의 전개 양상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Reading Theory in Chosun Dynasty

한 미 경 (Han, Mi-kyung)*

◁ 목 차 ▷

1. 서 언	3.3 독서단계별 독서론 전개
1.1 연구의 목적	4. 주요 독서론의 비교 분석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4.1 사림도학파의 독서론
2. 연구의 배경	4.2 사림도학파와 실학파의 독서론
2.1 선행연구	4.3 실학파의 독서론
2.2 주요 독서론 학파	5. 결 언
3. 독서론의 전개	<참고문헌>
3.1 시기별 독서론 전개	
3.2 학자별 독서론 전개	

< 초 록 >

이 연구는 조선시대 학자들의 독서론 전개에 대하여 시기별, 학자별 및 독서단계별로 고찰하고 조선 중기의 사림도학파와 후기의 실학파의 주요 독서론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중기와 후기에 많은 독서론이 등장하였다. 둘째, 조선 중기와 후기의 학자 중 이황과 이이 및 이덕무와 정약용이 주장한 독서론이 전체 50종 중 약 70%였다. 셋째, 독서 전단계의 경우 자세와 부지런함이 제기되고 있다. 독서 중단계의 경우 1) 태도, 2) 완독여부, 3) 집중의 방법, 4) 자기화 방법, 5) 능동적 방법, 6) 부가적 방법 등으로 고찰되었다. 독서 후단계의 방법으로 기록, 초록, 반복적 독서 및 강론과 토론 등이 있다. 넷째, 조선중기 사림도학파 이황과 이이 그리고 조선후기 실학파인 이덕무와 정약용의 독서론을 비교한 결과 공통적인 독서론은 마음의 자세와 숙독이었으며, 이덕무와 정약용의 공통적인 독서론은 마음의 자세와 성독 및 체계적으로 읽기였다. 이덕무는 자독의 방법, 핵심을 짚으며 읽기, 완독 및 기록을, 정약용은 선별하여 읽기와 정보의 계열화를 각각 특징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要語: 독서, 독서론, 사림도학파, 실학파

* 경기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조교수(bib4u@kgu.ac.kr)

접수일: 2013년 12월 6일 최초심사일: 2013년 12월 17일 심사완료일: 2013년 12월 28일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progress of reading theories in terms of period, scholars, and stages of reading and analyzed through comparison of major reading methods of Sarimdo School in mid Chosun period and Silhak School in late Chosun perio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it is in mid and late Chosun period when the greatest number of opinions and contentions on reading appeared.

Secondly, reading theories brought up by Hwang Lee, Yi Lee, and Deokmu Lee, and Yak-yong Jung, who were active in mid and late Chosun period, account for 70% of total 50 kinds of reading theories.

Thirdly, in the case of pre-reading development stage, the value of diligence is being claimed in addition to attitude. When it comes to reading stage, the value of 1) attitude, 2) level of reading completion, 3) concentration method, 4) internalization method, 5) active method, and 6) additional method were mentioned. Regarding the method of post-reading state, record, abstract, repetitive reading, exposition and discussions were mentioned.

Fourthly, the comparison of reading theories between Hwang Lee and Yi Lee from Sarimdohak School in mid Chosun period and those of Duck-moo Lee and Yak-yong Jung from Silhak school in late Chosun period shows that they share the same reading theory attaching value on attitude of mind and careful reading. And it is also found out that Duck-moo Lee and Yak-yong Jung shares in common the reading methods attaching value on the attitude of mind, reading out and systematic reading. Duck-moo Lee's reading theory is characterized by self-earning method, reading through key points finding, complete reading, and recording method, while Yak-yong Jung's is characterized by selective reading and systematization of information.

Key words: reading, reading theory, Sarimdo School, Silhak School

1. 서 언

1.1 연구의 목적

사대부란 벼슬하지 않고 독서를 하면 ‘사(士)’이며, 정치에 종사하면 ‘대부(大夫)’라는 말의 합성어 인 것처럼 조선시대에는 관인(官人)이 곧 학자요, 학자가 곧 관인이었다. 이처럼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독서의 목적은 학문과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방법이었으며, 수기(修己)와 치인(治人)을 위한 최상의 방법이였다. 즉, 선조들은 성인의 경전을 통하여 유교의 기본이념인 수기치인을 강조하며 자기의 완성을 위해 인격 수양에 도움이 되는 책을 읽었으며, 과거 및 관직의 준비를 위한 입신양면의 방법으로 독서를 매우 중요시하였다.

독서는 인간의 제일가는 청사(淸事)라고 한 정약용은 훌륭한 독서를 위해서는 책을 읽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자세와 견해가 확실히 정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책을 읽어도 뜻이 머리 속에 들어오지 않아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또 읽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 흥미와 오락 그리고 교양과 지식정보의 습득 및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독서라면 선조들에게 독서는 실제적인 생활의 근간이자 득력의 수단이자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도의 신분사회였던 조선시대는 건국 이래 여러 학자들에 의한 다양한 독서론이 제기되었으며, 그러한 독서론은 한 시대의 특징과 사회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따라서 조선시대 독서론의 전개 양상에 대한 고찰 또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조선시대를 범위로 다양한 독서론에 대하여 시기별, 학자별 및 독서단계별 전개를 고찰하고 조선 중기의 사림도학과와 조선 후기의 실학파의 독서론을 주요 학자별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¹⁾

1)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독서관’, ‘독서론’, ‘독서방법론’, ‘독서법’ 등의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독서론’을 대표 용어로 사용하기로 한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조선시대를 범위로 하되 시기의 구분은 전기, 중기 및 후기로 구분된다. 전기와 후기의 이분법적 시기구분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계기로 조선사회가 크게 변화한 것을 기준으로 나누는 국가재조론과 인조반정설의 입장에서 구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전기, 중기 및 후기의 삼분법적 구분에 따른 각 시기는 다음과 같다.²⁾

1) 조선 전기. 15세기 후반까지로 14세기 조선건국이래 정치적 대변혁의 고비를 넘기고, 성과를 마무리하는 시기이다.

2) 조선 중기. 15세기 후반이후 18세기 초반까지의 시기로 국가의 체민정책이 약화되고 향촌에서 농민을 지배하던 사족층의 성장이 두드러진 시기로서 사족층이 사회의 주인공이 되는 시기이다.

3) 조선 후기. 18세기 전반 이후 한말에 이르는 시기로서 사족을 위주로 국가의 각종 정책이 약화되는 시기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상의 전기, 중기 및 후기로 구분하기로 하되 입신과 저술활동을 감안하여 해당 학자의 생년에 20살을 추가하여 각 학자의 활동 시작 시기를 분류하기로 한다. 다만 일부 학자의 경우 인명사전 등에서 활동시기를 말기로 기술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경우 말기로 기술하기로 한다.

이 연구는 문헌분석과 역사연구방법으로 진행하되 조선시대 선조들의 다양한 전통적 독서론의 조사는 기존 연구자의 논문을 바탕으로 추가 수정 보완하여 진행하고자 한다.³⁾ 즉, 학자와 독서론의 추출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1) 학자의 추출. 기존의 선행연구들 중 한국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독서방법’, ‘독서법’ 및 ‘독서론’을 키워드로 검색되는 학술논문 중에서 조선시대 독서론을 연구한 논문들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자 27명을 추출하였다.

2) 김성우, 『조선중기 역사와 사족』 (서울: 역사비평사, 2001), 48.

3) 한미경, “현대적 활용을 위한 전통적 독서방법에 대한 연구,” 『한국독서교육학회』 제1권 제2호(2013), 게재예정.

2) 전통적 독서론의 추출. 이상과 같이 검색된 학술논문 중에서 연구되고 있는 학자들 중 구체적인 독서론을 주장하고 있는 12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독서론을 고찰하였다.

다만 이상과 같이 추출된 학자와 독서론의 경우 조사 대상 학술논문의 누락 등에 따른 일부 불포함이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제외가 있을 수 있다.

2. 연구의 배경

2.1 선행연구

전통적 독서론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독서론에 대한 연구와 학자에 대한 인물중심의 독서론 연구 및 실학과 등 학파의 독서론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그 외 일정한 시기를 기준으로 역사적 고찰 및 분석이 진행되어 왔다. 그중 학파별 독서론 연구와 역사적 고찰 및 분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파별 연구의 경우 김수경은 사림도학파(士林道學派: 이황, 이이, 성혼)와 실학자(홍대영, 박지원, 이덕무, 정약용)로 구분하여 조선시대 독서론의 특징을 살피고 시대에 맞는 독서론 개발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⁴⁾ 이성희는 조선시대 중인층의 독서론에 대하여 사림도학파와 실학자로 구분하여 독서의 목적, 과정 및 방법을 살피고 중인의 역할, 의학, 율학 및 산학의 교육형태를 분석하였다.⁵⁾ 박수밀은 18세기 연암일파 실학자들을 대상으로 조선후기 독서론과 독서 방식의 변화를 분석하였다.⁶⁾ 방인숙은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독서이론에 대하여 이황,

4) 김수경, “조선시대 독서론의 특성에 관한 고찰,”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3권 2호(2002), 243-263.

5) 이성희, “조선시대 중인층의 독서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천안대학교 문헌정보대학원 문헌정보학전공, 2005).

6) 박수밀, “조선후기 독서론과 독서 방식의 변화: 18세기 연암일파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이이, 이덕무와 정약용을 대상으로 독서의 인지적 요인과 정의적 요인 그리고 독서환경과 도서선정을 고찰하였다.⁷⁾

역사적 고찰 및 분석의 경우 원재린은 조선후기 성호학파(星湖學派)의 독서론과 강론 방식을 살폈으며,⁸⁾ 김종철은 근대 초기를 시기적 범위로 제한하여 당시의 독서론을 고찰하였다.⁹⁾ 노병성은 18세기를 대상으로 조선지식인의 독서방법에 관하여 분석하였다.¹⁰⁾ 한편, 특정 독서론에 대한 역사적 전개 고찰도 이루어 졌다. 즉, 김기호의 경우 ‘영인이해(迎刃而解)’ 독서론의 역사적 전개를 고찰하였으며, 김은경은 조선시대의 이이에서부터 홍길주에 이르기까지의 인물을 대상으로 내용 이해를 위한 방법, 재구성을 위한 방법 및 텍스트에 따른 독서방법으로 구분하여 독서론을 고찰하였다.¹¹⁾ 그리고 한미경은 전통적 독서법과 전통적 지양 독서법을 고찰하고, 전통적 독서법간의 비교에 이어 전통적 독서법과 현대 독서법을 비교 분석하였다.¹²⁾

이외에 인물 대상의 독서론 연구 또한 많이 이루어 졌으며, 연구 대상 인물 빈도수를 살펴보면 이덕무, 이황, 정약용, 이이의 순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¹³⁾ 이처럼 학파별 독서론 연구와 독서론의 일정시기를 대상으로 한 역사적 고찰 및 인물별 독서론 연구 외에 조선시대의 전반적 독서론 전개 양상에 대한 고찰은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제어문」 33(2005), 133-167.

- 7) 방인숙,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독서 이론 연구: 이황, 이이, 이덕무, 정약용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학과, 2012).
- 8) 원재린, “조선후기 星湖學派의 讀書法과 講論 방식,” 『한국사연구』 120(2003), 157-182.
- 9) 김종철, “근대 초기(初期)의 독서론(讀書論),” 『독서연구』 10(2003), 77-100.
- 10) 노병성, “18세기 조선지식인의 독서방법에 관한 고찰,” 『한국출판학연구』 52(2007), 117-158.
- 11) 김기호, “한국사상(韓國思想) 문화(文化): 영인이해(迎刃而解) 독서론의 역사적 전개와 그 현대적 의미,” 『韓國思想과 文化』 67(2013), 7-37.; 金恩暻, “朝鮮時代 讀書 方法論 研究,” 『漢文古典研究』 13(2006), 303-346.
- 12) 한미경, “현대적 활용을 위한 전통적 독서방법에 대한 연구,” 『한국독서교육학회』 제1권 제2호(2013), 게재예정.
- 13) 김원준, “퇴계와 율곡의 독서론 용어를 통한 고전독서이론의 모색,” 『嶺南學』 21(2012), 341.

2.2 주요 독서론 학파

조선시대는 유교·유학의 시대로서 유학의 큰 흐름에 따라 학파의 존망성쇠가 이어져 왔으며, 이는 독서론의 등장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독서론 관련 학파에 대한 분류는 각 연구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 또한 조선시대 유학의 큰 흐름을 따르고 있다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독서론 관련 학파는 1) 조선 전기의 관료사장과, 2) 조선 중기의 사림도학과, 3) 조선 후기의 실학과와 같이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각 학파에 대한 간략한 특징과 학자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⁴⁾

2.2.1 관료사장과

시가와 문장인 사장(詞章)을 중시하는 관료사장과(官僚詞章派)는 경세치용을 중시하는 조선 초기의 신진 사대부층으로 새롭게 개혁하려는 포부를 갖고 있었다. 양반사대부들 가운데에 관료사장과 지식인들의 경우 대부분 젊을 때에는 청운의 뜻을 품고 독서를 통한 과거공부에 몰두하였다. 이후 이들은 관계에 진출해서 실무를 맡게 되면 외교와 정치에 필요한 책들을 읽게 되었다. 따라서 관료사장과 지식인들과 학자들의 독서 목적은 주로 입신양명과 국가적 이익추구라는 실리적인 것이었다. 이들은 대체로 16세기 중방 사림도학파의 정치적 등장과 함께 사라졌다 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이색(李穡), 정몽주(鄭夢周), 정도준(鄭道傳), 권근(權近) 등이 있다.

2.2.2 사림도학과

유학은 그 시대와 학파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발달하였다. 즉, 현대의

1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www.encykorea.com/>>.

『한국브리태니카온라인』, <<http://timeline.britannica.co.kr/>>.

훈고학(訓詁學), 당대의 사장지학(詞章之學), 송대의 정주성리학(程朱性理學), 명대의 양명학(陽明學), 그리고 청대의 고증학(考證學)과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 등 시대에 따라 특징을 달리해 발전하였다.

그 가운데 도학은 송대에 와서 크게 일어난 정주성리학의 별칭으로 남송의 주희(朱熹)에 의하여 집대성된 송학(宋學)을 말하며, 대표적 완성자인 주희의 이름을 따 주자학이라고도 한다. 도학은 고려 말에 도입된 이래, 조선의 문화와 사상에 접목되어 다시금 재해석되고 발전되었다.

우리나라의 도학과는 ‘이학의 조(理學之祖)’ 정몽주로부터 계승되어 왔으나, 실질적인 도학의 시발은 조광조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학자는 이이(李珥)와 이황(李滉)이다. 도학에서 학문 저술의 수교적 측면을 발휘한 학자는 이황으로 갑자·기묘·을사 사화 등 어지러운 사회의 시대를 살면서 전도수업(傳道授業)을 사명으로 하였다. 이이는 도학에서 수기와 처인, 이론과 실천의 양면을 지닌 철인(哲人)이자 경세가였다.

2.2.3 실학과

실학(實學)은 ‘실제로 소용되는 참된 학문’이라는 뜻으로 ‘유학의 전통에서 공리공론(空理空論)에 기초한 헛된 학문’이라는 뜻의 허학(虛學)과 대립된 말로 폭넓게 쓰여 왔다. 이는 17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조선 후기 사회에서 나타났던 새로운 사상으로 당시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성리학의 관념성과 경직성을 비판하며 경세치용과 이용후생, 실사구시의 학문 태도를 강조했다. 대표적 학자는 유형원(柳馨遠), 이익(李瀾), 정약용(丁若鏞), 박지원(朴趾源), 홍대용(洪大容), 박제가(朴齊家), 김정희(金正喜), 최한기(崔漢綺) 등이 있다.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첫째, 경세치용학과. 18세기 전반에 농업 중심의 개혁론이 대두되었는데, 농촌 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농민의 입장에서 각종 제도의 개혁을 추구한 실학자들은 경세치용학과라고 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농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토지 제도

의 개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대표적인 학자는 유형원, 이익, 정약용 등이다.

둘째, 이용후생학과. 18세기 후반 영·정조 시대에 상공업 발전 및 기술 혁신을 주장하는 실학자들로 당시 청나라의 문물을 적극 수용하여 부국강병과 이용후생에 힘쓰자고 주장하였으므로 이들을 이용후생학과 또는 북학과라고도 한다. 그들은 주로 청나라에 내왕하면서 청조 문화의 우수함을 보고 조선에 돌아와서 그 발달한 문화를 수입하자고 주장하였다. 대표적 학자는 유수원(柳壽垣),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이덕무, 홍양호(洪良浩), 유득공(柳得恭) 등이다.

종합적으로 이상의 세 학파는 독서론과 관련하여 대체로 1) 조선 전기 관료사 장파들은 입신양명형 독서론의 경향을, 2) 조선 중기 사림도학파들은 도학주의형 독서론의 경향을, 3) 조선 후기 실학파들은 문제해결형 독서론의 경향을 지니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독서론의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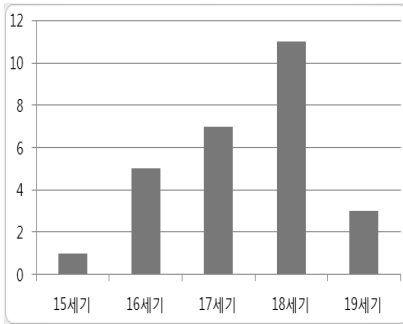
이장에서는 조선시대 학자들의 독서론에 대하여 시기별 전개, 학자별 전개 및 독서단계별 전개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1 시기별 독서론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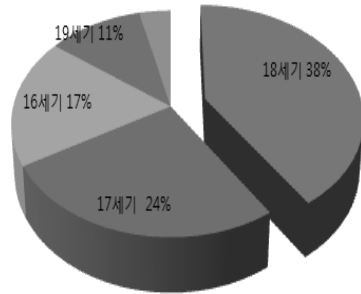
독서와 관련하는 주장이나 독서론을 기술하고 있는 학자 27명에 대하여 입신과 저술활동을 감안하여 생년에 20살을 추가하여 활동시작 시기를 가름하고, 일반적인 인명사전이나 역사사전 등에서 구분하는 활동시기 기준을 반영하여 각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시기별 독서론 학자

시기	독서자	생몰년	비고
전기	김일손(金駟孫)	1464(세조 10)~1498(연산군 4)	학자·문신
중기	이황(李滉)	1501(연산군 7)~1570(선조 3)	문신·학자
	조식(曹植)	1501(연산군 7)~1572(선조 5)	학자
	성혼(成渾)	1535(중종 30)~1598(선조 31)	성리학자
	이이(李珥)	1536(중종 30)~1584(선조 17)	문신·학자
	성문준(成文濬)	1559(명종 14)~1626(인조 4)	문신
	하홍도(河弘度)	1593(선조 26)~1666(현종 7)	학자
	김득신(金得臣)	1604(선조 37)~1684(숙종 10)	시인
	송시열(宋時烈)	1607(선조 40)~1689(숙종 15)	문신·학자
	윤휴(尹鑄)	1617(광해군 9)~1680(숙종 6)	문신·학자
	박세채(朴世采)	1631(인조 9)~1695(숙종 21)	문신·학자
	김창흡(金昌翕)	1653(효종 4)~1722(경종 2)	학자
	이덕수(李德壽)	1673(현종 14)~1744(영조 20)	문신
후기	이익(李瀾)	1681(숙종 7)~1763(영조 39)	실학자
	윤동규(尹東奎)	1695(숙종 21)~1773(영조 49)	학자
	신후담(愼後聃)	1702(숙종 28)~1761(영조 37)	학자
	송능상(宋能相)	1709(숙종 35)~1758(영조 34)	학자
	위백규(魏伯珪)	1727(영조 3)~1798(정조 22)	실학자
	홍대용(洪大容)	1731(영조 7)~1783(정조 7)	실학자·과학사상가
	박지원(朴趾源)	1737(영조 13)~1805(순조 5)	문신·학자
	이덕무(李德懋)	1741(영조 17)~1793(정조 17)	실학자
	송치규(宋稗圭)	1759(영조 35)~1838(헌종 4)	학자
	정약용(丁若鏞)	1762(영조 38)~1836(헌종 2)	실학자
	홍석주(洪奭周)	1774(영조 50)~1842(헌종 8)	문신
	홍길주(洪吉周)	1786(정조 10)~1841(헌종 7)	학자
말기	서응순(徐應淳)	1824(순조 24)~1880(고종 17)	문신·학자
	김택영(金澤榮)	1850(철종 1)~1927	학자



<그림 1> 시기별 독서론 학자 분포도



<그림 2> 시기별 독서론 학자 분포율

이상 <표 1>과 같이 관료사장과가 주로 활동하던 조선 전기에는 독서론 주장 학자가 그다지 나타나지 않은 반면, 대부분의 독서론 학자는 중기와 후기에 걸쳐 고르게 등장하고 있다. 그중 조선 중기는 15세기 후반이후 18세기 초반까지로 사회적인 변화와 성장이 두드러진 시기이다. 즉, 조선 중기에 들어서면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독서론에 대한 의견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조선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18세기는 영·정조 시대의 문예부흥과 더불어 늘어나는 서적의 종수와 중국의 서적 수입이라는 종래 없었던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정보와 지식, 천주교와 같은 새로운 사상이 등장 및 증가하였던 시기이다. 이 시기는 <그림 1>과 <그림 2>와 같이 가장 많은 독서론 주장 학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은 조선 중기 이후 기존의 전통적인 독서론을 계승하면서도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새로운 체계적인 독서론을 주장하게 된다.

3.2 학자별 독서론 전개

이상의 시기별 독서론 전개의 대상이었던 27명의 학자들 중 구체적으로 독서 또는 독서론을 언급하고 있는 12명의 학자들을 기준으로 각 학자별 독서론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학자별 독서론

독서가	독서방법	비고	종수
이항	1) 독서전 자세 2) 정독 3) 속독 4) 성독 5) 체계적으로 읽기 6) 반복적 독서 7) 분석적 독서	1) 『退溪集』 「言行錄」 卷1 讀書 2) 『退溪集』 「言行錄」 卷1 讀書 “先生讀書 正生莊誦 字求其訓 句尋其義 雖一字一畫之微 不爲放過.” “問讀書之法 先生曰只是熟 凡讀書者 雖文之意 若未熟 則旋讀旋忘 未能存之於心 必也既學而又加溫熟之功 然後方能存之於心而有浹洽之味矣.” 3, 5) 金誠 『鶴峯先生文集續集』 「退溪先生言行錄」 4, 6-7) 『退溪集』 「言行錄」 卷1 讀書	7
이이	1) 마음자세 2) 반복적독서 3) 정독 4) 속독 5) 완독 6) 성독 7) 분석적 독서 8) 체계적 독서 9) 함께 읽기	1) 『栗谷全書』 「擊蒙要訣」 持身 2) 『栗谷全書』 「學校模範」, 「擊蒙要訣」 讀書 3-4) 『栗谷全書』 卷27 「擊蒙要訣」 讀書 “凡讀書者 必端拱危坐 敬心方冊 專心致志 精思涵泳 深解義趣 而每句必求踐履之方 若口讀而心不體 身不行 則書自書我自我 何益之有” 5) 『栗谷全書』 卷27 「擊蒙要訣」 讀書 “凡讀書 必熟讀一冊 盡曉義趣 貫通無疑然後 乃改讀他書 不可貪多務得 忙迫涉獵也.” 6) 『栗谷集』 卷15 雜著 「學校規範」 7-8) 『栗谷集』 卷20 「聖學輯要」 修己上 窮理 9) 『栗谷全書』 卷36, 書 「答具汝膺」 : 續集 卷4 「答李剛而」	9
하홍도	1) 의문의 독서 2) 격물치지	1) 『謙齋集』 卷10 「讀書說示人」 “ … 逐一字尋一字之義 逐一句尋一句之義 一章如此 … 惟務精而自熟然後 書一書而爲我有也 書二書而爲我有也 …” 2) 『謙齋集』 권10 「讀書說示人」	2
송시열	1) 초록	1) 『宋子大全』 「看書雜錄」	1
윤휴	1) 기록-질서 2) 자득	1-2) 『白湖集』 卷22 序 「讀書記序」	2
박세채	1) 격물치지	1) 『南溪集』 卷55 「讀書淺說」	1
이익	1) 기록-질서 2) 강론과 토론 3) 이의역지-의심과 회의의 독서	1) 『星湖僿說』 3) 『星湖僿說』 「聖人之言」 “論語二十篇 皆聖人之言行 宜無一毫可疑 其或有一時有爲發者 其於未盡曉處 亦宜像想當時緣何等事端而發此言句乎 必得其事 然後方得其言也 … 凡其所謂聖人之言者 學者宜去其違持若干 餘悉溫釋而註釋 誦習服膺 豈不有益.”	3
홍대용	1) 이의역지	1) 「與梅軒書」 “余嘗以孟子以意逆志四字 爲讀書符訣 古人作書 不惟義理事功 雖篇法起結文辭之末技 莫不各有其志 今以吾之意逆古人之志 融合無間 相說以解 是古人之精神見識 透接我心.”	1

조선시대 독서론의 전개 양상에 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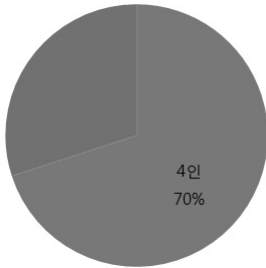
독서가	독서방법	비고	종수
박지원	1) 점진적 독서론 2) 자득의 방법 3) 체계적으로 읽기 4) 마음의 자세	1, 3-4) 『燕巖集』 「原土」 2) 『燕巖集』 「素玩亭記」 “… 雖效專於董生, 助記於張君, 借誦於東方, 將無以自得矣, 其可乎?”	4
이덕무	1) 점진적 독서 2) 자득의 방법 3) 자료 참고하며 읽기 4) 핵심을 짚으며 읽기 5) 초록 6) 숙독 7) 체계적 독서 8) 마음의 자세 9) 완독(完讀) 10) 기록 11) 낭독, 성독	1) 『靑莊館全書』 「十小節」 教習 “… 量其資稟 能二百字者 只可授以一百字 常使精神力量有餘 則無壓苦之患 而有自得之美 … 久則義理浹洽 聰明口開矣.” 2, 6-8) 『靑莊館全書』 「十小節」 教習 3) 『靑莊館全書』 「十小節」 教習 “一曰熟誦經文也, 二曰盡參衆說, 而別其同異, 較其長短也, 三曰精思以釋所疑, 而猶未敢自信也, 四曰明辯以去所非, 而猶未敢自信也. 能於一經上, 得其門而入, 則諸書皆同室, 而異戶者, 可以類推而通.” 4) 『靑莊館全書』 「十小節」 教習 “看書, 先看序及凡例, 著書人 參校人, 卷帙幾何, 目錄幾條, 別其體裁, 不可齒奔胡亂, 自命博學.” 5) 『靑莊館全書』 「與李洛瑞書」 9) 『靑莊館全書』 「十小節」 教習 “檢人家書帙 卷首必壞澣 而自第二卷 至于末卷 新鮮若手未觸者 士志之始勤而終怠 可知也.” 10) 『靑莊館全書』 「十小節」 教習 “凡書日過口過 終不如手過 盡手動則心必隨之 雖覽誦二十遍 不如鈔撮一次之功多也.” “紀事者 必提其要 纂言者 必鉤其玄.” “讀者 有名物文義疑難 輒寫笱記 逢人必問辨.” 11) 『靑莊館全書』 「十小節」 教習 “讀書之聲 溫而無濡 清而無促 勿復也勿絕也 勿聒也勿啞也 勿倒讀勿訛讀 勿落字 讀勿越行讀.”	11
정약용	1) 독서 전 자세 2) 정독 3) 선별하여 읽기 4) 정보의 계열화 5) 자료 참고하며 읽기 6) 초록, 발췌하기 7) 숙독	1) 『猶堂全書』 1集 21卷 寄二兒 “… 讀書必修先立根基 … ” 2, 6) 『與猶堂全書』 「答二兒」 3) 『與猶堂全書』 「爲盤山丁修七贈言」 “… 古者典籍不多, 以讀書成誦爲務, 今四庫書充棟汗牛, 安得每讀, 唯易詩禮論孟等當熟讀, 然須講究考索 得其精義 隨所思則行笱錄 苟孤朗讀 亦無實得也.” 4) 『與猶堂全書文集』 「小學珠串序」 5) 『與猶堂全書』 「十三經策」 “… 使讀書之士, 開卷瞭然, 知某說之起於何人, 某義之助於何書, 而其取舍從違之權, 聽學者自擇, 不使牽強而勉從焉, 則淹貫博雅之士, 稍出其間, 足以貢聖朝文明之化 … ” 7) 『與猶堂全書』 「爲盤山丁修七贈言」	7

독서가	독서방법	비고	종수
홍길주	1) 추려읽기 2) 부지런함	1) 『睡餘放筆』 “... 假如一卷書約七八十葉, 拈其菁華不過十數葉, 俗士從頭盡讀, 而不知其菁華之所在, 唯有悟者, 信手披過而菁華處, 自觸于眼一卷之內, 只究了十數葉而止, 其見功倍于盡讀者, 以故人方讀二三卷書, 我已了却百卷, 而見功亦倍於人 ...” 2) 『睡餘放筆』	2
총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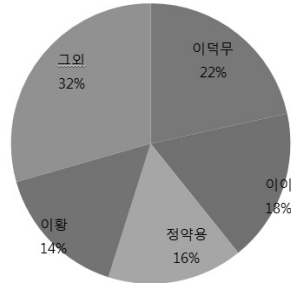
이상의 <표 2>와 같이 이황, 이이, 하홍도, 송시열, 윤휴, 박세체, 이익, 홍대용, 박지원, 이덕무, 정약용, 홍길주 등의 인물은 다양한 독서론을 논하고 있다. 이들이 제기하고 있는 다양한 독서론을 살펴보면 유사하거나 중복되기도 하나 주장하는 내용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어 각각 개별적인 독서론으로 조사하였다. 총 50종 중 <그림 3>과 <그림 4>와 같이 이황과 이이 및 이덕무와 정약용에 의하여 총 35종(70%)이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대체로 조선시대 중·후기의 인물로서 이황과 이이는 조선중기 사림도학파에 속하며, 이덕무와 정약용은 조선 후기 실학파에 속한다. 이는 사림도학파의 도학주의형의 독서론과 관료사장파의 입신양명형의 독서론이 섞여 있던 조선 전기의 독서경향이 중기에 이르러 사림도학파로 넘어가고 이후 18세기 전후 사회현상과 변화에 따라 조선 후기 실학파들이 조선전기의 보편주의적 학문과는 차별되는 실천적·실용적 학문을 추구하면서 다양한 독서론이 제기된 결과로 보인다.

한편, 학자별 독서론 제기의 수치적 순위를 보면 그중 이덕무의 경우 11종(22%)로 가장 많은 독서론을 주창하였으며, 다음으로 이이는 9종(18%)을 주창하였다(<그림 4> 참조). 즉, 이덕무와 이이 및 정약용과 이황의 순으로 독서론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독서론 연구의 인물의 빈도수에 따른 이덕무, 이황, 정약용, 이이의 순서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들 4인의 학자들이 독서론 연구의 빈도수 상위를 차지하는 이유 또한 제기하고 있는 독서론의 다양성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림 3> 4인 학자의 독서론 제기율



<그림 4> 학자별 독서론 제기율

3.3 독서단계별 독서론 전개

이상의 학자별 독서론 전개에서 조사된 독서론을 독서를 실행하는 독서 전, 독서 중 및 독서 후의 단계별로 분류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독서단계별 독서론

단 계	방법	독서가	비고
독서 전	자세	정약용	
	부지런함	홍길주	
	몸의 자세	이황	
	마음의 자세	이황, 이이, 이덕무, 박지원	
독서 중	읽는 태도	정약용	
	기록	이덕무, 정약용, 윤휴, 이익	
	낭독, 성독	이황, 이이, 이덕무	
	다독	정약용	
	정독	이황, 이이, 정약용	• 정약용: 다독->정독
	숙독	이황, 이이, 이덕무, 정약용	• 정독+반복
	체득	이황	
	격물치지 자득 이의역지	하홍도, 박세체 윤휴, 이덕무, 박지원 이익, 홍대용	

단 계	방법	독서가	비고
	점진적 독서	이황, 이덕무, 박지원	
	체계적 읽기	이황, 이이, 이덕무, 박지원	
	완독	이이	
	선별하여 읽기	정약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별하여 읽기: 중요 전적의 선별 • 추려읽기: 발췌독
	추려읽기	홍길주	
	핵심깊으며 읽기	이덕무	
	자료참고하며 읽기	이덕무, 이덕무	
정보의 계열화	정약용		
분석적 읽기	이황, 이이		
함께 읽기	이이		
독서 후	기록	이덕무	
	초록	송시열, 이덕무, 정약용	
	반복	이황, 이이	
	강론과 토론	이익	

이상의 <표 3>과 같이 각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독서론은 독서 전과 독서 중 및 독서 후의 독서단계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중 독서 전단계의 경우 일반적인 자세와 부지런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몸과 마음의 자세의 중요성이 주장되고 있다. 이는 책을 읽기 위한 준비자세로서 선조들이 책을 대하는 생활태도와 정신상태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독서 중단단계의 경우 학자들마다 다양한 독서론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개괄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1) 태도. 독서에 임할 때의 몸과 마음으로 지켜야할 태도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독서 전단계에서 자세를 중요시하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 2) 완독여부. 이 경우는 읽는 책을 완전히 다 읽어야 여부의 문제로서 특히 이이는 완독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홍길주는 추려읽기를 주장하고 있어서 서로 상반된다.
- 3) 집중의 방법. 집중의 방법으로는 정독이 가장 대표적이며, 체계적으로 읽기

와 핵심을 짚으며 읽기 또한 집중의 하나의 실천방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속독의 경우는 학자에 따라서는 반복적 읽기를 의미하기도 하고 정독의 하나로 주장되기도 하므로, 대체적으로 정독과 반복을 겸하여 집중적 읽는 독서론이라 할 수 있다.

- 4) 자기화 방법. 이는 일종의 내면화 방법으로서 체득, 격물치지, 자득, 이의역지와 같은 방법이 해당되는 것으로 때에 따라서는 여러 번 반복을 통하여 체득하기도 하고 의심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연구하여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이다. 즉, 문헌상의 저자가 의도하는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자기화 방법들이라 할 수 있다.
- 5) 능동적 방법. 여기에는 선별하여 읽기, 핵심짚으며 읽기, 자료 참고하며 읽기, 분석적 읽기 및 정보의 계열화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는 상술의 자기화 방법이 문헌상의 내용 이해를 위한 심리적인 방법이라면 이는 일종의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다양한 독서를 위한 기술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6) 부가적인 방법. 이는 시각적인 눈 이외에 추가적으로 음성과 필기 및 참고자료와 같은 다른 수단 등을 동원 또는 부가하여 읽는 방법이다. (1) 음성의 부가. 조선 전기에 주로 행하여왔던 눈으로 만 읽는 간서(看書) 외에 입으로 읽는 성독이나 낭독의 경우 소리를 동원하여 눈과 입과 귀의 감각 기능을 이용하여 이해와 집중을 더하는 방법이다. (2) 필기의 부가.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행하는 기록 또는 초록이나 정보의 계열화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는 독서를 하면서 주요 내용을 기록하거나 초록하거나 또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계열화하는 필기의 방법을 동원하여 독서에 임하는 경우이다. (3) 참고자료의 활용. 독서를 하면서 관련 자료를 참고하며 읽기 역시 내용의 완벽한 이해를 위하여 행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독서 후단계의 방법으로 기록하고 초록하는 것 외에 반복하여 읽는 것이 있으며, 강론과 토론의 경우 자기 자신만의 독서에서 머무르지 않고 동료 또는 스승과의 책 내용에 대한 나눔과 분석을 행하는 확장적 독서방법 또한 주장 및

실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주요 독서론의 비교 분석

조선시대 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론 연구에 등장하는 인물의 빈도수로 보면 이덕무, 이황, 정약용, 이이의 순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또한 이들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독서론은 의미있는 분기점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왔다.¹⁵⁾ 또한 진술의 학자별 독서론의 전개 조사에 따르면 이들 4인이 제기하고 있는 독서론이 가장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장에서는 조선 중기 사림도학파인 이황과 이이 그리고 조선 후기 실학파인 이덕무와 정약용의 독서론을 대상으로 주요 독서론의 비교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4인의 독서론을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4.1 사림도학파의 독서론

사림도학파의 대표적인 이황과 이이의 독서론 비교는 여러 연구자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 김원준의 경우 마음의 자세, 소리내어 읽기(성독), 반복과 집중의 읽기, 분석적 읽기, 체계적 읽기를 대표적으로 비교 고찰하고 관련 독서법 용어를 통한 고전독서이론을 고찰하였는데, 이는 대표적인 두 학자의 독서론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예이도 하다.

<표 4>에서와 같이 두 학자의 독서론 중 이상의 다섯 가지의 공통된 부분 외에도 정독과 숙독은 중요한 독서론이자 두 학자 모두 주장하고 있는 독서론이다. 한편, 이이는 이외에도 완독을 중시하였고, 함께 읽기라는 독서론도 제기하였다.

15) 김원준, “퇴계와 율곡의 독서론 용어를 통한 고전독서이론의 모색,” 『嶺南學』 21(2012), 341.

<표 4> 이황과 이이 및 이덕무와 정약용의 독서론의 비교

① 이황	② 이이	③ 이덕무	④ 정약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전 자세 • 정독 • 속독 • 성독 • 반복적 읽기 • 분석적 읽기 • 체계적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자세 • 정독 • 속독 • 성독 • 완독 • 반복적 읽기 • 분석적 읽기 • 체계적 읽기 • 함께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의 자세 • 낭독, 성독 • 점진적 독서론 • 자독 • 자료 참고하며 읽기 • 핵심을 짚으며 읽기 • 초록 • 속독(속독) • 체계적으로 읽기 • 완독 •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전 자세 • 정독 • 선별하여 읽기 • 정보의 계열화 • 자료 참고하며 읽기 • 초록 • 속독(속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한색+밑줄: ①②③④의 공통 • 진한색: ①② ③④의 차이 • 밑줄: ①②③의 공통 • 이태릭체+ 밑줄: ①②④의 공통 • 점선밑줄: ③과 ④의 공통 • 이태릭체: ③과 ④의 차이 • (): 중복

4.2 사림도학과와 실학파의 독서론

이상의 <표 4>와 같이 사림도학파의 이황과 이이 그리고 실학파의 이덕무와 정약용의 독서방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4인의 공통적인 독서방법. 이황과 이이가 주장하는 마음의 자세와 속독의 경우 이덕무와 정약용 모두 제기하고 있다. 이는 시대적으로 독서가 수기치인이자 입신양명이었던 당시의 독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독서를 위한 사전적 방법과 완전한 독서를 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이황·이이와 이덕무의 공통적인 독서방법. 이 경우는 이상의 마음의 자세와 속독 외에 소리내어 읽기인 낭독과 성독 그리고 글읽는 순서를 중시하는 체계적으로 읽기가 해당된다.

셋째, 이황·이이와 정약용의 공통적인 독서방법. 이 경우는 마음자세와 속독 외에 정독만이 공통적으로 그 외 독서론은 다소 차이가 보인다.

이상과 같이 4인의 공통된 독서론인 마음자세와 속독 외에 일부 독서론 만이

공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선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면서 보다 발전된 독서론이 제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며, 사림도학파의 도학주의형 독서론 경향과 실학파의 문제해결형 독서론 경향의 차이의 반영으로도 보인다.

4.3 실학파의 독서론

실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인 이덕무와 정약용의 독서론의 경우 이덕무와 정약용이 주장하고 있는 독서론에도 각각 특징이 있으므로 1) 두 학자의 공통된 독서, 2) 이덕무의 독서론, 3) 정약용의 독서론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4.3.1 이덕무와 정약용의 공통적 독서론

이덕무와 정약용의 공통적인 독서론의 경우 역시 마음자세와 독서전 자세가 공통이라는 것 외에 자료 참고하며 읽기와 초록과 숙독을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중 자료 참고하며 읽기는 독서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다른 자료를 함께 찾아보는 독서방법으로 이덕무와 정약용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덕무의 자료 참고하며 읽기는 “하나, 경문을 익힐 것이요. 둘, 여러 사람의 설을 다 참고하여 그 같고 다른 점을 분별하고 장점과 단점을 비교할 것이요. 셋, 정밀히 생각하여 의심되는 것을 풀이하고서 감히 자신감을 갖지 말 것이요. 넷, 밝게 분별하여 그릇된 것을 버리고 감히 스스로 옳게 여기지 말 것이다. 능히 한 경서에서 문호를 찾아 들어간다면 모든 책이 다 한방에 있을 것이요. 문호가 다른 책은 유추해서 통할 수 있을 것이다(<표 2> 참조).”와 같이 정독을 주장하며 네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그중 두 번째 단계가 ‘진참중설(盡參衆說)’로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하며 읽는 독서론이다.

둘째, 정약용의 자료 참고하며 읽기는 독서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다른 자료를 함께 찾아보는 것으로 전술한 것과 같이 능동적이고 자기 주체적인 독서론이다. 정약용은 “글 읽는 선비로 하여금 책을 펴보면 어떤 학설은 어떤 사람한

테서, 어떤 뜻은 어떤 책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환히 알게 하는 한편, 취하고 버리고 쫓고 쫓지 않는 권한은 듣는 이들 스스로가 선택하게 할 것이요(<표 2> 참조).”라고 하며 경전을 경전으로 증명 해석할 것과 주체적으로 취사선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4.3.2 이덕무의 독서론

이덕무만이 주장하고 있는 독서론으로는 자득의 방법, 핵심을 짚으며 읽기, 완독 및 기록과 같은 방법이 있다. 그중 이덕무만의 기록의 방법과 특유의 체계적 읽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첫째, 기록의 방법은 “무릇 책에 있어서 눈으로 지나가고 입으로 지나가는 것은 마침내 손으로 쓰는 것만 못하다. 왜냐하면 손이 움직이면 마음이 반드시 따르기 때문이다. 비록 이심여편을 읽더라도 한번 요점을 잡아 기록함의 공이 많음만 못하다. 기록과 메모의 구체적인 방법은 사건을 기록할 때에는 그 요점을 제시하고 글을 모아 엮을 때에는 현묘한 이치를 밝혀야 한다. 또한 책을 읽다가 명물과 문외에 의문점이 있으면 반드시 기록하여 두었다가 사람을 만나면 이를 물어보고 따지는 것이다.” 이처럼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기록의 방법과 의문점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체계적으로 읽기는 “단계를 따라 점진적으로 나아가되 익숙히 읽고 정밀히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글자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구절에서 요지를 찾아내는 데 앞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다음을 찾지 말아야 하고 … 이와 같이 단계를 따라 점진적으로 읽어간다면 뜻이 정해지고 이치가 밝혀지게 되고 …”, “글 읽는 횟수는 시간을 배정해야 하고, 배정된 시간을 넘나들어 더 읽기도 하고 덜 읽기도 해서는 안된다. … 아침에 40, 50줄을 배워서 하루 번을 읽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섯 차례로 분배하고 한 차례에 열 번씩 읽었다. … 만일 재주와 기질이 왕성한 자로 하여금 그 능력에 따라 과정을 정해 나가게 한다면 그 진취는 끝이 없을 것이다.” 이처럼 이덕무는 체계적으로 독서하며 단계를 정하여 점진적

으로 독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4.3.3 정약용의 독서론

정약용만이 주장하고 있는 독서론으로는 선별하여 읽기와 정보의 계열화가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첫째, 선별하여 읽기는 많은 문헌들 중 중요한 책들을 선별하여 읽는 독서론으로 그는 “옛날에 전적이 많지 않았을 때에는 책을 읽어 외우는 것에 힘썼는데, 지금은 사고의 책만 해도 한우충동하니 어찌 일일이 읽을 수 있겠는가? 오로지 주역, 서경, 시경, 예기, 논어, 맹자 등은 마땅히 숙독하여야 한다. 그러나 모름지기 차륙하여야만 실득이 있게 된다. 진실로 오로지 낭독만 하면 또한 실득이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일부 책들을 골라 숙독하는 것으로 책이 많지 않을 때와 풍부해진 때와는 다른 독서론을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는 오늘날의 일부 내용을 뽑아 읽는 발췌독과는 다른 것이다.

둘째, 정보의 계열화는 독서하면서 주요 정보들을 정리하면서 체계화하는 방법이다. 정약용은 어린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300조목을 뽑아서 차례로 열거한 뒤 출전과 내용을 설명한 책인 『여유당전서문집(與猶堂全書文集)』 『소학주관서(小學珠串序)』에서 온갖 경전과 제자류의 책에 나오는 사물의 이름이나 많은 목록들은 모두 고운 구슬이라며 이를 꿰지 않는다면 또한 얻는 족족 잃어버리고 말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정약용은 정보습득에 대하여 많은 정보와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계열화하는 자기화 방법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5. 결 언

이 연구는 조선시대 선조들의 독서론에 대하여 시기별, 학자별 및 독서단계별

전개 양상을 고찰하고 조선 중기의 사림도학과와 조선 후기의 실학파의 주요 독서론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기별 독서론의 전개. 조선시대를 대상으로 개국이래부터 조선 말기까지 총 27명의 학자들을 대상으로 고찰한 결과 조선중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독서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등장하였다. 특히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18세기의 경우 영·정조 시대의 사회 변화와 새로운 정보와 지식 사상이 증가하면서 독서론에 대한 고찰도 많아 졌다.

둘째, 학자별 독서론의 전개. 시기별 독서론 전개의 고찰 대상이었던 학자 중 구체적인 독서론을 제기하고 있는 12명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대체로 조선시대 중·후기의 인물들이었다. 총 50종의 독서론이 조사되었으며, 그중 이황과 이이 및 이덕무와 정약용에 의하여 제기된 독서론이 전체 중 35종으로 70%였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독서론 인물연구의 빈도수와 다소 차이는 있으나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셋째, 독서단계별 독서론의 전개. 독서 전단계과 독서 중단계 및 독서 후단계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 독서 전단계의 경우 일반적인 자세 외에 부지런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몸의 자세와 마음의 자세의 중요성이 주장되고 있다. 독서 중단계의 경우 1) 태도, 2) 완독여부, 3) 집중의 방법, 4) 자기화(내면화) 방법, 5) 능동적인 방법, 6) 부가적인 방법 등으로 고찰되었다. 독서 후단계의 방법으로 기록하고 초록하는 것 외에 반복하여 읽는 것, 강론과 토론 등의 확장적 독서론이 나타났다.

넷째, 조선시대 독서론상 의미있는 분기점을 이룬 조선중기 사림도학과 이황과 이이 그리고 조선후기 실학파인 이덕무와 정약용의 독서론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네 명 학자의 공통적인 독서론은 마음의 자세와 숙독이었다.
- 2) 이황·이이와 이덕무의 공통적인 독서론은 마음의 자세와 소리내어 읽기인 낭독과 성독, 글읽는 순서인 체계적 독서였다.
- 3) 이황·이이와 정약용의 공통적인 독서론은 마음자세와 정독하는 독서가

공통적이었다.

4) 이덕무와 정약용의 공통적인 독서론은 마음자세와 독서전 자세, 자료참고하며 읽기, 초록과 숙독이었다.

5) 이덕무와 정약용이 각각 주장하고 있는 독서론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덕무가 주장하고 있는 독서론은 자득의 방법, 핵심을 짚으며 읽기, 완독 및 기록과 같은 방법이 있으며, 정약용이 주장하고 있는 독서론은 선별하여 읽기와 정보의 계열화가 특징적이다.

종합적으로 조선 중기부터 많은 독서가들이 등장하였으며, 특히 조선 중기에서 후기로 접어드는 시기인 18세기의 학자들은 전통적인 독서론을 계승하는 한편 증가하는 지식의 획득과 정보의 선택을 위해서 새로운 독서론을 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학자들의 시기별, 학자별 및 독서단계별 독서론 전개를 고찰하고 조선 중기의 사림도학과와 조선 후기의 실학과와 주요 독서론을 비교 분석을 통하여 주요 학자의 특징적 독서론을 살펴본 이 연구가 관련 분야와 현대적 독서연구에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기호. “한국사상(韓國思想) 문화(文化): 영인이해(迎刃而解) 독서론의 역사적 전개와 그 현대적 의의.” 『韓國思想과 文化』 67(2013). 7-37.
- 김수경. “조선시대 독서론의 특성에 관한 고찰.”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3권 2호 (2002). 243-263.
- 김성우. 『조선중기 역사와 사족』. 서울: 역사비평사, 2001.
- 김원준. “퇴계와 율곡의 독서법 용어를 통한 고전독서이론의 모색.” 『嶺南學』 21(2012). 337-394.
- 金恩暻. “朝鮮時代 讀書 方法論 研究.” 『漢文古典研究』 13(2006). 303-346.
- 김중철. “근대 초기(初期)의 독서론(讀書論).” 『독서연구』 10(2003). 77-100.

- 노병성. “18세기 조선지식인의 독서방법에 관한 고찰.” 『한국출판학연구』 52(2007). 117-158.
- 박수밀. “조선후기 독서론과 독서 방식의 변화: 18세기 연암일파와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33(2005). 133-167.
- 방인숙.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독서 이론 연구: 이황, 이이, 이덕무, 정약용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학과. 2012.
- 원재린. “조선후기 星湖學派의 讀書法과 講論 방식.” 『한국사연구』 120(2003). 157-182.
- 이성희. “조선시대 중인층의 독서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천안대학교 문헌정보대학원 문헌정보학전공. 2005.
- 鄭 珉. “고전 독서방법론의 양상과 층위.” 『한문교육연구』 25(2005). 515-547.
- 정병현. “전통적 독서관과 그 현대적 의미.” 『독서연구』 창간호(1996). 35-54.
-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 『한국브리태니카온라인』. <<http://timeline.britannica.co.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www.encykorea.com/>>.
-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 한미경. “현대적 활용을 위한 전통적 독서방법에 대한 연구.” 『한국독서교육학회』 제1권 제2호(2013), 게재예정.
- Barry, A.L. 2008. “Reading the Past: Historical Antecedents to Contemporary Reading Methods and Materials.” *Reading Horizons*, 49(1). 31-52.
- The Reading Experience Database(RED), 1450-1945. [online].
[cited 2013.11.18]. <<http://www.open.ac.uk/Arts/RED/index.html>>.

